

공포, 개인화 그리고 축소된 주체

200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일상성

정수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외래강사, 문화·감정사회학 전공
socysunam@hanmail.net

- I. 머리말: 일상적 불안과 공포의 시대
- II. 불확실성과 공포문화의 구조적 형성
- III. 공포의 사사회와 축소된 주체: 개인화의 패러독스
- IV. 자기표출적 일상의 패러독스
- V. 맺음말

이 글은 2010년 한국사회사학회와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한국연구소에서 주최한 '한국 근현대 100년, 일상생활의 변화'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글을 대폭 수정한 논문이다. 당시 유익한 토론을 해주신 류제철 선생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을 전한다. 그리고 이 논문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세 분의 익명의 논평자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I. 머리말: 일상적 불안과 공포의 시대

최근 10여 년 동안 한국사회는 많은 (충격적인) 사건사고들을 경험했다. 예컨대, 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사사건,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유명철 연쇄살인사건, 김선일 피살사건, 연천군 군부대 총기난사사건, 서해안 원유유출사고, 광우병 촛불집회, 용산참사, 노무현 대통령 자살, 천안함 침몰사건 등은 물론이고, 먹을거리나 생활상의 안전 문제와 관련한 사건 사고들이 연일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의 공통점은 위험사회론자들이 주지하듯이, 어느 누구도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점에 있다. 이 사건들이 배태하고 있는 위험은 전통사회에서 경험했던 위험과 매우 이질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사건사고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 둘째, 미래에 대한 회의 및 희망결핍, 명확한 목적의 부재, 셋째, 복잡한 지구적 네트워크 동학 속에서 기인하는 통제 불가능성이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오늘날의 공포는 예측할 수 없고 자유 부동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¹⁾ 위험의 지구화와 관련하여 이질적인 문화들 간의 폭발적인 교류와 소통은 이전의 생활양식과 매우 차별화된 형태의 시공간체제로 일상을 재편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개별화된 이질성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위험(risk)을 동반한 사회적 불확실성을 불가피하게 경험해야 하는 상황이 공존하고 있다. 예컨대, 국가 간 경계소멸, 지구사회, 포스트모던 문화에 관한 논의가 부상하는 만큼 다른 한편에서는 지구적 빈곤, 테러리즘, 민족주의, 종교적 광신주의, 파시즘이 증식하는 이중구조가 전 세계를 무대로 펼쳐지고 있다.

사건을 실시간으로 구성해서 반복적으로 보도하는 대중매체의 스펙터클 테크놀로지가 위험을 상품화하여 이윤을 획득하려고 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근원적인 힘은 바로 다음과 같은 심성 때문이다. ‘내가 언제 저 같은 일을 겪게 될까’라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불확실성. 이러한 불확실성에 비례해서 공포도 가중된다. 그리고 일정 시간 동안 공중의 뇌리를 관통하는 감정적 분위기로 남아 있게 된다.

1) U. Beck, *The Risk Society*(London: Sage, 1992).

이와 같은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 불가능한 일들은 전 국민을 순식간에 공포와 불안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으면서, 사회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재편하는 감정적 분위기(emotional climate)를 형성한다. 감정적 분위기는 드 리베라의 지적대로, 단순한 집합감정이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이 감정적으로 어떻게 서로 관련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암묵적인 사회적 효력을 갖는다.²⁾ 이에 대해 바바렛은 “감정적 분위기는 공통의 사회구조와 과정에 연루된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에 의해 공유될 뿐만 아니라 정치적·사회적 정체성과 집합행동의 형성과 유지에 중요한 일련의 감정 또는 느낌”이라고 주장한다.³⁾ 따라서 특정한 감정적 분위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에 상응하는 행위를 유도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이 글에서 다루는 공포분위기는 사람들이 타인들과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공유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일상적으로 재편해나가는 과정에 개입한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그린에 따르면, 공포는 가족 내, 이웃 간, 동료 간의 불신에 썩기를 박음으로써 사회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든다.⁴⁾

무엇보다도 우리의 일상생활을 공포분위기로 몰아넣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찾아온 경기침체와 노동시장의 유연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기업의 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기본적인 삶의 기대(expectation)를 축소시켰으며, 고용불안정과 단기성 고용문화는 삶의 지속성을 불규칙적이고 불확실하게 만들었다. 대량해고, 명예퇴직, 비정규직, (청년)실업 등 노동시장의 구조조정의 결과로 나타난 문제들은 일상을 더욱 불안의 세계로 내몰았다. 실제로 공포는 장기전망의 결핍과 다름없다.

이러한 흐름은 2000년대를 경유하면서 경제영역뿐만 아니라 사회 전 영역으로 확산되었다. 이제 일상성은 단기성·축소·불규칙·불확실성·즉시성으로 재구성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상성은 오늘날 한국사회에 어떤 함의를 갖는 것인가? 이러한 일상성이 한국사회 전체 구조를 어떻게 재조직화하고 있는가?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경우 어떤 현상이 일상영역에서 확산될 것인가? 이 글은 이러한 질문들을 바탕으로 현대 한국사회의

2) de Rivera, “Emotional climate: social structure and emotional dynamics,” in *International Review of Studies on Emotion*, edited by K. T. Strongman(New York: John Wiley & Sons, 1992).

3) 책 바바렛, 『감정의 거시사회학』(서울: 일신사, 2007), 266쪽.

4) Green, “Fear as a Way of Life,” *Cultural Anthropology*, 9(2)(1994), p. 227.

일상성을 감정사회학적 해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일상성은 매우 미시적이면서도 거시적인 사회 흐름을 압축하고 있다. 그런데 미시와 거시의 결합을 위한 연결고리로서 필자는 감정을 그 중심에 놓고자 한다. 왜냐하면 감정은 개인 내면의 생물학적 에너지(미시)이지만 동시에 사회적 관계 내에서 출몰한다는 점에서 지극히 사회적인 것(거시)이기 때문이다.⁵⁾ 따라서 본 논문은 2000년대를 전후로 한 한국사회의 일상성과 주체의 문제를 공포감정을 통해 고찰해봄으로써 사람들의 일상 행위와 에토스의 변화를 현상학적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II. 불확실성과 공포문화의 구조적 형성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로 규명하는 많은 논의들은 오늘날의 위험(risk)은 사회 내적으로 발생한 것이며, 사회에 배태된 위험은 불행하게도 예측 불가능하고 해소 불가능한 공포를 동반한다고 주장한다.⁶⁾ 가랜드에 따르면, “위험은 항상 불확실성의 맥락에서 존재한다.”⁷⁾ 그 어떤 시대보다도 군사·경찰·정보기술·감시체계·의료체계 등 안전체계가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강한 불확실성·불안·공포·안전민감성을 경험한다. 현재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 폭력, 사고들 중 과거에 비해 줄어든 부문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증가하는 부문들이 있다. 예를 들어, 성폭력, 가정폭력, 노인학대, 아동범죄, 살인, 자살 등이 대표적이다.⁸⁾ 최근 김왕배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사회의 자살현상은 “목표달성주의적인 저돌적 산업화” 시대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성숙한 시민문화의 결핍, 사회안전망의 취약함, 그리고 경박한 자본주의 정신이 결합되어 나타난 산물이라는 것이다. 이로써 한국사회

5) 박형신·정수남, 「거시적 감정사회학을 위하여」, 『사회와 이론』 통권 15집(2009), 203쪽.

6) 바우만, 『유동하는 공포』(서울: 산책자, 2009), 55쪽.

7) D. Garland, “The Rise of Risk,” *Risk and Morality*(Toronto: Univ. of Toronto Press, 2003), p. 52.

8) 강간은 2000년 6,982건에서 2008년 13,634건, 살인은 1997년 789건에서 2008년 1,120건, 아동성범죄는 전체 아동인구 10만 명당 2005년 10.0건에서 2008년 16.9건으로 69% 증가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홈페이지 자료). 2010년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중 13.8%가 학대받은 경험이 있다고 조사되었다(《경향신문》, 2010년 6월 15일자). 자살자 수는 2005년 당시 인구 10만 명당 26.1명으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의 19.9명보다 많게 나타났다(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가 불안사회로의 해체위험성을 지니고 있으며, 자살을 추동하는 분노, 수치, 모멸, 체념, 좌절, 소외감과 같은 감정이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한다.⁹⁾ 뿐만 아니라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대형사고들을 포함하여 광우병, 사스, 기후변화 등 건강 및 생명과 관련한 전 지구적 차원의 위험들 또한 확산되고 있다.¹⁰⁾

한편 이러한 위험들은 현대 대중매체를 통해 더욱 사람들의 감정을 동요시킨다. 왜냐하면 대중매체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위험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큰 위험과 불안에 빠져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대중영화, 드라마, 시사프로그램 등에서 다루는 내용의 상당 부분도 일상 속에 스며 있는 위험을 강조하는 데 할애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여 년 사이에 증가한 시사고발프로그램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되는 위험, 폭력, 질병, 위생, 사기, 범죄 등을 다루는 데 상당 부분 치중해왔다. 이것들에만 의존해서 보면 한국사회는 이미 '위험공화국'이다. 이러한 위험담론은 공포문화를 형성하는 데 일조한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사회의 공포문화는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에 의해 구조적으로 형성된다.

첫째, 공포문화는 시장의 불확실성과 고용의 단기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2000년대 이후 한국사회를 일상적 불안과 위험에 빠뜨린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앞서 언급했듯이 1997년 IMF 외환위기이다. 현대문명의 역설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전쟁, 대형사고와 달리 좀 더 현실적인 차원에서 외환위기는 생존 문제와 직결되는 사건이었다. 세계에 대한 절박함은 다른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렬한 실존적인 고통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경제적 파탄은 건강, 가정, 사회적 관계까지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외환위기 직후 김대중 정권은 정치적 민주화를 착수하는 작업에 앞서 경제위기를 우선적으로 극복해야 하는 과중한 책임을 떠안았다. 그리고 위기탈출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시스템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유례없는 속도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이후 10년을 거치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는 사회 전 영역을 관통하면서 사회양극화라는 거대한 괴물을 탄생시키고

9) 김왕배, 「자살과 해체사회」, 『정신문화연구』 제33권 제2호(2010), 219-220쪽.

10) 특히, 먹거리와 관련된 위험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일상적인 공포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박형신, 「먹거리 불안·파동의 발생메커니즘과 감정동학」, 『정신문화연구』 제33권 제2호(2010) 참고.

말았다. 중산층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하층계급으로 전락하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또한 계급양극화가 심화되면서 하층민들의 탈빈곤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 이로써 희망 상실과 하강이동의 공포, 그리고 상승이동의 불가능에서 오는 체념 섞인 문화가 한국사회 노동자 개인들에게 확산되고 있다.¹¹⁾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기업의 구조조정은 상시화되고 있으며, 고용불안정으로 인해 비정규직노동자 수는 외환위기 이후부터 전체 노동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왔다. 비정규직으로서의 삶이 노동자들에게 부과하는 가장 근본적인 불안은 저임금, 고노동과 같은 물리적 차원에 앞서 단기성의 삶이라는 시간적 차원에서 기인한다. 작업장 내에서 생존을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업무스트레스 및 동료들 간의 갈등과 소외도 한층 더 심화된다. 정규직노동자라고 해서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예외가 아니다. 또한 청년실업은 더욱 심화되어 외환위기 이후 내내 해소되지 못한 채 국가와 시장은 청년세대들에게 암울한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 학교 졸업 후 취업 전까지의 백수생활은 통상적인 절차로 받아들여야 하는 체념적 선택이 되어버렸다. 졸업은 유예된 채로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대학 5학년'의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졸업유예는 취업에 대한 불안을 그나마 학교라는 울타리로 상쇄하려는 전략과 다름없다. 이처럼 노동시장의 단기성과 불확실성은 생존과 관련된 삶의 미래를 매우 불투명하고 개인 삶의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점점 더 어렵게 만든다.

둘째, 공포문화는 국가에 대한 불신과 깊이 연동되어 있다. 제도적 차원에서 볼 때 사회적 삶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위기나 위협으로부터 사회구성원들을 보호해주는 사회안전망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다. 1998년 이후 정치적 민주화가 다소 진일보했다는 일각의 의견을 감안하더라도 사회안전망은 여전히 물질적 토대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OECD 국가들 중 사회보호 분야 국가재정지출(2003-2004) 비율을 보면, 미국이 19.5%, 독일 46.6%, 일본 34.7%인 데 반해 한국은 9.7%에 불과할 정도로 사회안전망의 물질적 토대가 형편없다. 특히 비정규직노동자나 빈곤층일수록 사회보험 가입률은 매우 낮아서 사회적 위협에 직면할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¹²⁾ 이 같은 현실은 국가가 국민들이 겪는 삶의

11) 정수남, 「노동자의 불안·공포와 행위의 감정동학」,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68-82쪽.

불안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공포를 감당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오히려 국민들은 국가가 제공하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제외한 나머지 안전판은 모두 각자 알아서 만들어가라는 암묵적인 압박을 받는다. 2000년대 동안 늘어난 사적 보험 시장의 엄청난 성장은 공포에 대한 부담을 개인이 책임지는 문화가 형성되었음을 반증해준다.

셋째, 공포문화는 국가나 시장 영역 외에도 시민사회에 대한 신뢰 상실과 연동되어 있다. 한 연구기관 조사에 따르면, 행정부·사법부·국회·정당·경찰 등 국가기관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도는 1997년에 비해 2007년 들어 훨씬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1990년대 이후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감안해볼 때, 국가와 정치정당에 대한 불신은 사람들이 시민사회나 이익집단을 포함한 비영리단체에 의존하는 비율을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다. 1990년대 대폭 증가한 시민사회나 이익집단은 사람들에게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을 일정 정도 만회해주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 이와 같은 상황은 역전된다. 위의 조사에 따르면, 1997년에 비해서 2007년에는 언론·시민단체·대학·노조 등 비영리단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¹³⁾ 종종 발생하는 노조위원들의 부정부패 사건이나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갈등 속에서 벌어지는 정규직노조에 대한 불신의 벽이 2000년대 들어 급격하게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실업, 고용, 조기퇴직, 고령화, 교육 등 사람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는 국가와 시민사회 모두에 대한 사람들의 냉소주의 혹은 환멸이 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¹⁴⁾

넷째, 공포문화는 전문가체계의 발달과 함수관계를 갖는다. 한국사회의 위협과 공포에 대한 민감도는 다양한 사회서비스단체 및 전문상담기관의 급증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00년대 들어서 급격하게 증가한, 예컨대 컨설팅, 전문상담, 치료집단과 같은 전문상담집단은 한국사회가 위협에 처해 있다는 전제를 깔고 그것을 해결해주는 서비스기관으로서 날마다

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따르면, 2008년 현재 빈곤층의 사회보험 중 산재보험은 77.3%, 고용보험은 77.5%가 미가입 상태에 있다.

13)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국민의식조사 - IMF 10년, 한국사회 어떻게 변했나』(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07).

14) 1989년 이후 대통령 투표율을 보면, 89.2%, 81.9%, 80.7%, 70.8%, 62.9% 그리고 1988년(13대) 이후 총선투표율을 보면, 75.8%, 71.9%, 63.9%, 57.2%, 60.6%, 46.1%이다.

증가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에게 불안과 공포는 도처에 있고 우리 안에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전문서비스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날 전문가체계는 그 자체로 위험담론을 생산하는 ‘공장’이며, 위험을 관리하면서 재생산하는 ‘컨설팅 사회’의 핵심기제이다.¹⁵⁾ 개인이 전문가체계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는 현상은 노동과 일상을 보호해주는 외피로서 전통시대에는 종교, 근대사회에서는 국가나 시장이 그 역할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신뢰의 상실과 일맥상통한다. 오늘날 개인은 국가가 아닌 사적 차원에서 접근 가능한 주변의 전문가체계에게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형성된 공포문화는 푸레디의 주장대로,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에 도전하는 것을 막는다. 그리고 끊임없이 예방을 미덕으로 부추기고 위험감수를 무책임한 행동과 등치시키는 분위기를 조장한다. 특히 우리가 직면하는 위협들에 공유된 의미를 부여하는 거대서사가 없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점점 사적이고 개인화된 성격을 지니게 된다.¹⁶⁾ 결국 개인화는 공포를 배태한 자율성을 의미하며, 이때 공포는 자유가 개인화되듯 사사화(privatization)된다.

III. 공포의 사사화와 축소된 주체: 개인화의 패러독스

1. 공포의 사사화와 ‘자기’ 중심의 일상

일반적으로 개인화는 근대사회가 구축되기 위한 내재적 조건으로서 전통사회를 지탱해온 공동체적 울타리, 즉 각종 규범, 규칙, 담론, 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나는 거대한 문화적 흐름을 의미한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사회가 근대화를 거치면서 촉발되었지만 1987년 10월 민주화 항쟁 이후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50여 년 동안 한국사회가 추구한 민주화 열망의 핵심에는 ‘개인’의 자유가 내포되어 있었다. 그리고 1998년에서 2007년까지의 기간은 민주주의에 대한 일상적 감각이 이전 시기와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극대화된 시기라고 볼 수 있다.¹⁷⁾ 특히 이

15) 천선영, 「컨설팅 사회」, 『담론 201』 7(1)(2004), 104-130쪽.

16) F. Furedi, *Culture of Fear Revisited*(London: Continuum, 2006), p. 9.

17) 일례로 지난 10여 년 동안 시민단체는 물론 사이버공간에서 만들어진 커뮤니티, 동호

시기는 사회적으로 배제되어왔던 여성, 아동,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을 위한 인권과 인정의 정치가 급부상한 때이기도 하다.¹⁸⁾ 정치적 민주화와 함께 '정체성'의 정치가 강조되면서 '개인'은 문화적 자율성을 획득하였다. 소통의 물리적 공간에서도 과거 정치집회를 위한 동원의 장소로만 활용되었던 광장이 생활정치를 위한 자율적인 집회장소로 활용되었으며, 정보 기술혁명에 힘입어 의사소통 방식의 전환이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하는 공간을 획득했으며, 자기만의 공간을 창출하는 '생산하는 주체'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개인화 과정을 표면적으로 이해하기에 앞서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내적 동학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바로 공포의 사사화이다. 오늘날 개인이 경험하는 공포는 사회적으로 분산되거나 분담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개인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사회적 감정이 되고 있다. 일상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개인화 양상을 지표화한 몇몇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1인가구는 1985년 6.9%에서 2008년 20.1%로, 여성가구주는 1990년 15.7%에서 2008년 22.1%로, 인구 1,000명 당 이혼 건수는 1990년 2.4건에서 2008년 4.8건으로,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1990년 10.6%에서 2005년에는 23.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통계청, 각연도). 몇몇 지표를 통한 개인화 양상은 피상적으로는 자율적인 영역의 확장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개인이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많아졌다는 점 또한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이웃과의 거리감을 획득하면서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웃과 공유할 수 있는 일들은 그만큼 사라져가고 있다. 이제 이웃이 아닌 보안업체들이 도둑을 지켜주고, 봉변을 당하더라도 이웃을 찾기보다는 119에 전화를 걸어야 한다. 이제 이웃은 '사촌'이 아니라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심지어 잠재적 가해자로 여겨지고 있다.¹⁹⁾ 불행하게도 오늘날 불안과 공포는 이웃과 함께 분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이웃'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공포의 사사화가 진행되도록 하는 강력한 압력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회, 개인홈피 등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폭증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혹자들은 이러한 흐름을 다중적 정체성의 부상이라고 해석하면서 새로운 민주주의사회가 도래하고 있다고 설파하기도 한다.

18) 여성부 및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에 출범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8년에 시행되었으며,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인권관련 단체들도 2000년대 들어서야 활성화되었다.

19) 종종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범죄사건들 중에서 이웃해 있는 사람이 저지른 범행들이 전파를 타면서 일상은 더욱 경계와 주의해야 할 시공간으로 재편되어가고 있다.

확산되면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새로운 사회적 위협의 증가, 전통적 규범의 해체, 신자유주의의 전면화 등은 개인에게 자유를 매개로 일상적 공포를 확산시킨 구조적 요인으로 작동한다.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에서 국가는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경제적 책임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국가는 개인이 자신이 알아서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자유롭게 내버려둘' 뿐이다.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포획당하고, 노동시장으로부터 퇴출되더라도 국가가 안전판을 제공해주지는 못하는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개인의 철두철미한 노력 외에는 다른 대안이 마땅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송호근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의 불신풍조는 개인들로 하여금 사적 영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게 만들었으며, '가족중시 경향과 연고주의가 강화'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즉, "기대가 꺾인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에게 가족과 연고주의는 안식처를 제공했다."²⁰⁾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생존' 그 자체가 삶의 목표가 된 만큼 현재 많은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고 재산을 최대한 증식하는 일은 숙명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²¹⁾ 이에 대해 김홍중은 IMF 이후를 '1997년 체제'라고 규정하면서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제적 생존', 무차별적인 과시가 지배하는 공간에서 살아남기 위한 '사회적 생존' 그리고 질병과 죽음을 넘어서 오래 살고자 하는 '생물학적 생존'이 지배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주장한다.²²⁾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박소진은 신자유주의가 개인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고 국가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시킴에 따라 '자기관리'와 '가족경영'에 몰두하도록 통치한다고 주장한다.²³⁾

이와 같은 흐름이 전개된 배경으로 우선적으로 국가가 위협에 대한 대부분의 책임을 개인에게 부과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재편되어왔다는

20) 송호근, 『한국,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삼성경제연구소, 2003), 177쪽.

21)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서 실시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직장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2003년보다 2007년에 크게 증가했으며, '행복을 위해서는 경제적 풍요가 중요하다'는 의식 또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일례로 고용안정성을 지닌 공무원의 경우 2010년 7급 국가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72:1을 기록했고, 대기업 입사경쟁률은 57:1, 심지어 2009년 환경미화원 경쟁률도 35:1을 기록했다.

22) 김홍중, 「진정성의 기원과 구조」, 『한국사회학』 제43집 5호(2010), 22쪽.

23) 박소진, 「'자기관리'와 '가족경영' 시대의 불안한 삶」, 『경제와 사회』 통권 84호(2009), 34쪽.

점을 들 수 있다. 국가는 개인에게 자유를 부여한 대가로 자신의 책무로부터 점점 벗어나고자 한다. 오늘날 국가권력은 개인의 공포를 암묵적으로 통치의 한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국가적 책무를 벗어나려는 공포정치를 행하고 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국민국가의 쇠퇴, 민족국가의 붕괴 등 세계화를 정당화하면서 높아진 국가경쟁력의 위상을 통해 개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면제도 정당화하고 있다. 결국 국가는 불안과 공포를 개인에게 떠맡김으로써 부담을 벗고 효율적으로 국민들을 훈육할 수 있는 기제를 장악해나가는 발판을 마련한다(서동진, 2009: 332). 엄밀히 말하자면, 국민들은 개개인 스스로 공포를 벗어나기 위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에 요구되는 습성은 '자기'에 대한 절제·통제·계발·몰입 등으로 출현한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산되면서 능력 위주의 성과급제, 연공서열제 붕괴, 프로젝트 중심의 업무는 기존의 서열 중심 조직문화를 완전히 바꾸어놓았다. 작업장 내의 분위기는 업적 쌓기와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²⁴⁾ 이런 상황 속에서 신자유주의는 개인들에게 네 인생 앞에 놓여 있는 불안과 위험을 스스로 자유롭게 해결하라는 구호를 외친다. 따라서 '자유'라는 이름으로 노동은 일상에서도 무한히 연장된다. 그리고 시장에서의 도태는 모두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된다.

다른 한편 개인화 경향의 심화는 타인들과의 신뢰관계를 변화시키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는 세대 문제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다. 오늘날 기성세대는 더 이상 젊은 세대들의 보호장치나 가이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즉, 기성세대의 지식과 경험에서 오는 권위는 후속세대들에게 별다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기성세대는 후속세대와 동일선상에 있는 경쟁자가 되었거나 심지어 젊은 세대의 미래를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고령화의 심각성을 알리는 각종 언론보도들은 현재의 젊은 세대들이 미래에 '책임지고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의 증가를 다루는데 초점을 맞춘다. 이처럼 노인층은 젊은 세대들에게 희망과 안전을 보장해주는 집단이 아니라 절망과 책임을 지우는 거대한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다.²⁵⁾ 오늘날 주변의 노인들이나 심지어 부모에 대한 무시와 학대문

24) 박재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노동자의 삶의 질 변화: 한국의 사례」, 『한국사회학』 35집 6호(2001).

25) 다음과 같은 신문보도가 대표적인 예이다. "수명은 연장되는데 일할 사람이 줄어들면, 노령인구 부양을 위한 국민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복지 예산, 연금

화가 일상 속에서 확산되는 현상의 기저에는 기성세대들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개인화는 결국 국가든 기성세대든 타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점점 더 ‘자기 자신만을 믿도록 추동하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이같은 자율성의 에토스는 다음과 같은 명제를 우리에게 강조한다. “남 일 관여하지 말고 네 일이나 알아서 잘해라.”

그런데 자기 자신만을 믿도록 추동하는 사회적 삶은 역설적이게도 자유가 아닌 새로운 의존문화를 만들어낸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스스로 계산하면서 감당하기에 역부족일 수밖에 없는 사회적 위험의 확산은 개인들에게 지속적으로 공포를 촉발시킨다. 그리고 개인은 이러한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체계를 활용하는 삶을 추구한다. 개인들은 점차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전문가들을 찾아가 상담받고 치료받는 데 익숙해져가는 일상을 경험한다. 그런데 전문가체계가 발달할수록 불안감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폭하며, 궁극적으로는 없애고자 했던 공포 또한 해소되지도 않는다. 기능주의적 시각에서 볼 때, 전문가체계가 위험을 감소시키고 안전을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지만, 구조적 차원에서 보면 그것은 공포의 연쇄작용을 일으키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전문가체계가 전파하는 대부분의 지식과 정보는 모두 우리가 사는 현실세계는 위험에 빠져 있으며, 개인들은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각종 상담사, 전문카운슬러, 컨설턴트들의 기본적인 전제는 “우리는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이고, “당신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Furedi, 2006). 지난 10여 년 동안 이러한 전문가체계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기업들은 불안한 시장을 상대로 외부 컨설팅회사에 경영의 상당 부분을 의존한다. 특히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위험들을 담당하는 전문가집단의 증가는 훨씬 더 두드러진 현상이다. 그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유아상담, 가족상담, 심리치료, 의료서비스기관, 교육 및 진학상담을 비롯하여 각종 법률상

지출, 의료비 지출 등이 급증하면서 나라 재정은 악화하게 됩니다. 이 부담은 근로세대가 져야 하기 때문에 세대 간 분배 형평성 문제도 야기됩니다. 후세대는 부담은 더 커지는데, 받는 몫은 작아지는 현상이 구조화하는 것이죠. 200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0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지만, 2020년에는 5명이 1명, 2040년에는 2명이 1명을 부양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국일보》, 2004년 11월 29일자.

답에 이르기까지 일상과 관련된 수많은 위험을 관리해주는 기관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오늘날 사람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기에 앞서 전문가들을 찾는 ‘검색’능력을 중시한다. 이처럼 지식정보사회의 출현과 개인적 자유의 증대는 역설적이게도 개인의 선택을 주체적인 성찰적 판단에 더하기보다는 전문가체계에 의존하도록 만든다. 전문가체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개인들은 도전과 모험을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사회적 삶을 스스로 조직해나가지 못하는 개인화의 역설을 경험한다. 이렇게 볼 때 개인화는 더 이상 인간해방이나 자율성 획득의 의미로 이해되기 힘들다.

2. ‘안정’ 에토스와 축소된 주체

공포의 사사회는 사회구성원들 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주체의 영역을 그만큼 축소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오늘날 하나의 역설은 과거에 ‘저항과 진보’의 아이콘으로 여겨져왔던 젊은 세대들이 도전과 모험을 꺼려하고 안정과 보수적 삶을 추구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공포문화를 공유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안정은 궁극적인 삶의 윤리로 뿌리내리고 있다. 이러한 감정적 분위기는 먼저 계급재생산을 강화하는 동력으로 작동한다. 2000년대 들어 계급양극화와 함께 계급재생산은 더욱 견고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가족주의가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가부장성은 물론 가족구성원들의 계급적 위치를 고수하기 위한 경제자본 및 문화자본의 재생산 전략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²⁶⁾ 그리고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지식과 정보는 부의 증식과 개인의 계급적 취향을 표출하는 소비 중심의 라이프스타일의 추구에 관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²⁷⁾ 부동산투기와 주식투자에 관한 정보가 범람하고 있으며, 재테크를 위한 전문지식이 일상생활 깊이 침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하강이동의 두려움을 안고 있는 개인들에게 계급유지와 계급재생산은 안정적인

26) 백진아, 「한국의 가족 변화: 가부장성의 지속과 변동」, 『현상과 인식』 제33권 통권 107호(2009); 손승영, 「한국 가족의 과시적 구별짓기와 사랑의 물신주의」, 『현상과 인식』 봄/여름(2007), 114-115쪽.

27) 이영자, 「소비시장과 라이프스타일의 정치학」, 『현상과 인식』 통권 110호(2010), 101-124쪽.

미래를 확보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오늘날 많은 노동자들은 미래의 막연한 위험에 대한 대비를 위해 소득보존과 자산관리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다. 한 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맞벌이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직장인 5명 중 1명은 투/쓰리잡족일 정도로 일상의 대부분 시간을 경제적 소득을 확보하는 데 활용한다.²⁸⁾ 게다가 상당수의 직장인들은 주식, 펀드, 부동산, 재테크에 관한 전문지식을 쌓거나 그와 관련한 교육을 받는 일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기도 한다.

특히 공포가 가장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곳은 바로 교육영역이다. 한국사회에서 교육은 공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기성세대가 후속세대들에게 전파하고 훈육하는 문화적 통로이다. 교육은 더 이상 사회이동의 발판이 아닌 계급재생산 도구로서의 역할이 더 강해지고 있다. 자녀교육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는 미래를 위한 대비, 교육을 통한 계급재생산을 추구하면서 경제적 하강이동의 공포를 상쇄시키려는 전략이다. 조기교육 바람부터 영어열풍, 해외연수를 비롯한 '기러기' 가족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사교육시장의 극대화는 이미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반영하는 객관적 지표라고 볼 수 있다.²⁹⁾ 현재 중산층 이상의 많은 학부모가 자녀의 미래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하기 위해 수입의 상당 부분을 자녀교육시장에 투자한다. 신자유주의적 위험사회에서 “교육도 문화도 자본의 가치증식 수단”³⁰⁾으로 활용되는 상황은 부모들이 자녀교육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유도한다. 장기적인 전망에서 볼 때 교육은 계급재생산 혹은 상승이동을 위한 잠재적 투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부들’은 가족의 미래는 물론 자녀가 살아남아야 할 공포스러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기꺼이 전통적인 주부의 역할을 뛰어넘어 ‘가정의 CEO’로 재탄생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³¹⁾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교육을 통한 훈육의 결과이다. 일찌감치 부모들의 관여와 통제 속에서 관리되는 아이들은 저당 잡힌 미래 속에서

28) 《경향신문》, 2010년 2월 17일자.

29) 통계청에 따르면, 사교육비 총규모는 2007년 20조 400억 원, 2008년 20조 9천억 원, 2009년 21조 6천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30) 이득재, 「신자유주의 국가의 주체화 양식」, 『문화과학』 제54호(2008), 55쪽

31) 박혜경, 「신자유주의적 주부 주체화 담론의 계보학: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6권 2호(2010).

훈육되고 있다.³²⁾ 맞춤형 교육, 학습자 중심의 교육, 감성지수 등과 같은 교육프로그램의 지향점은 아이들을 더욱 치밀하게 관리하고 그들의 미래를 확고하게 인도하겠다는 부모들의 의지와 일맥상통한다. 이들은 유아기부터 철저하게 합리화된 교육시스템으로 ‘눈높이에 맞게’ 관리되고 길러진다. 그리고 이들은 관리된 꿈과 미래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획득하도록 주체화된다. 나아가 자녀의 생애과정에 대한 부모의 개입과 관여는 과거와 비교해볼 때 훨씬 더 강해지고 있다. 청년실업의 장기화, 경쟁의 가속화, 계급하강에 대한 불안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보호를 더욱 강화한다.

이렇듯 소득보존과 재테크, 교육열풍을 일으키는 내적 동학은 장기전망의 결핍에서 오는 공포를 상쇄시키기 위한 주체의 노력이며, 그 중심에는 ‘안정’ 에토스가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캠퍼가 말하는 ‘내사된 공포’ 행위로 규정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공포는 주체의 권력결여에서 기인하는데, 타자의 권력소유 여부에 따라 공포는 내사되거나 외사되는 형태를 취한다. 내사된 공포는 대체적으로 예측의 형태로 표출된다.³³⁾ 주체의 권력결핍은 결국 공포를 자기 자신에게 투사함으로써 외적 강제에 대한 저항과 반란보다는 회피와 예측을 이끌어낸다. 예측상태에 있는 주체는 사회변혁의 기대를 접고 체제순응의 삶을 추구한다. 또한 신자유주의적 공간에서 주체의 행위지향은 시공간적으로 매우 제한적이 된다. 강력한 시장권력과 약화된 국가의 보호 아래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면한 현실 앞에서 나약해질 수밖에 없다. 먼저 시간적 차원에서 볼 때, 주체는 장기적인 시간지평 속에서 가치합리적 행위를 추구하는 데 머뭇거리게 된다. 생존을 위한 목적이 최우선의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가치합리적 행위는 목적합리적 행위에 자리를 내주어야 한다. 다음으로 공간적 차원에서 ‘안정’ 에토스는 주체의 자율적인 이동을 더욱 제약한다. 안정된 직장을 구하는 노력 외의 모든 행위는 일단 유보되어야 하며, ‘정규직’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일에 도전한다는 것은 ‘미친 짓’이거나 ‘기이한 짓’이 되어버린다. 계급재생산의 심화는 계급이동

32) 오늘날 부모들은 교사와 동일한 위치에서 자녀의 교육과정에 개입하고 있다. 점차 교권은 학부모에게 넘어갈지도 모르며, 교사는 학생들을 위한 단순한 서비스제공자로 전락할 처지에 놓여 있다.

33) T. Kemper, *A Social Interactional Theory of Emotion*(New York: John Wiley, 1978), pp. 57-58.

의 공간을 축소시킴으로써 주체가 점진적인 노력을 통해 계급상승의 기회를 가질 수 없도록 만든다. 오히려 이 같은 신자유주의적 계급동학은 차라리 '대박'을 통해 미래를 보장받으려는 감정적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한다. 일확천금을 벌어들인 창업신화, 성공신화, 대중스타 이야기, 로또나 도박열풍³⁴⁾ 등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점진적으로 도전하는 서사가 아니라 순식간에 부와 지위를 상승시키는 '벼락부자' 서사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시공간적 맥락과 안정 에토스는 주체의 자율성이 갖는 중요성을 그만큼 축소시켜버린다. 나아가 스스로 미래를 선택할 수 없게 만드는 교육공간은 결국 '축소된 주체'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전락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러한 주체의 약화이자 안정의 에토스가 작동하면서 사회적 삶의 보수화를 낳는 결과를 초래한다. 한편 흑자들은 2000년대 한국사회를 열광과 흥분으로 들끓게 했던 월드컵과 촛불집회 등을 목격한 후 이를 대안적 민주주의의 등장으로 치장하면서 한국사회의 '다중성'의 출현에 주목한다.³⁵⁾ 특히 이러한 논의들은 과거 정치광장에서 목격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의 연대와 운동행태를 분석하면서 민주주의의 새로운 주체의 출현을 설파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촛불이 휘몰아치고 지나간 자리에 남겨진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떤 가치를 지향하면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재고해보아야 한다.³⁶⁾ 다중의 출현을 논하기에 앞서 개인화된 이질적 삶의 양식을 추구하면서도 정치적 보수화와 경제성장주의를 맹신하는 시대정신은 한국적 개인화가 낳은 공포의 반영물이라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즉, 공포가 사사회되는 과정에서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사회적 위험은 도전보다는 안정을, 변화보다는 지체를, 공공성보다는 개인성을 더욱 부각시킬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화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는 무엇을 위해 활용되

34) 외환위기 이후 위기탈출을 위한 전 국민적 프로젝트는 '성공신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왔다. 언론매체와 기업에서 후원하는 각종 강연회 그리고 대학강의에 이르기 까지 성공신화는 체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심지어 대중오락 및 교양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일상영역으로 전파되고 있다. 참고로 한국의 사행산업규모는 총 매출액이 2000년 5조 9381억 원에서 2007년 14조 5800억 원으로 거의 세 배가량 늘어났다.

35) 홍성태 외, 『촛불집회와 한국사회』(서울: 문화과학사, 2009); 조정한, 『미네르바의 촛불』(서울: 갈무리, 2009); 박원석 외, 『촛불이 민주주의다』(서울: 해피스토리, 2008).

36) 촛불집회에 관한 기존 논의와 달리 감정사회학적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는 박형신·이진희의 「먹거리, 감정, 가족동원: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의 경우」, 『사회와 이론』 통권 13집(2008) 참고.

며 일상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는가? 다시 말해서 축소된 주체가 구현하는 삶의 세계는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 공포상쇄를 위한 주체들의 일상생활은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가? 이러한 물음은 한국사회의 공포문화가 주체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단초를 제공해줄 것이다.

IV. 자기표출적 일상의 패러독스

1. 자기계발의 자유?

1990년대 이후 정치적 민주화가 일상생활까지 확대되면서 개인적 자유의 공간은 확대되는 한편, 신자유주의적 체제하에서 자유가 실현되는 공간은 시장영역과 소비영역으로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의 자유는 상호 배타적인 이해관계를 근간으로 실현되기 때문에 비인격적이고 탈사회적이다. 따라서 오늘날 개인들에게 제공된 자유는 국가의 개입을 받지 않는 유연한 시장 상황 속에서 자유롭게 경쟁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각자 알아서 취하라는 ‘신자유주의적’ 자유인 것이다. 결국 거대한 자본의 힘과 국가의 합법적(?) 권력 앞에서 사람들은 공포를 외사하기보다는 내사하면서 주체를 재구성한다. 그렇다면 불안한 노동시장과 사회적 위험 앞에 홀로 서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포와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

신자유주의적 공간에서 살아가는 주체들에게 국가와 사회가 제시한 프로그램은 성공을 위해 스스로 ‘자기계발’을 하라는 내용이 담긴 ‘자기거버넌스(self governance)’이다. 서동진에 따르면 신자유주의 공간에서 인간의 자유는 자기계발을 하는 주체가 갖는 ‘자유’이다.³⁷⁾ 그리고 그는 이를 신자유주의 통치성의 한 특징으로 규정하면서, ‘지배할 수 있는

37) 서동진, 『자유 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서울: 돌베개, 2009). 서동진은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개인은 자기계발의 자유를 누리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가의 통치맥락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장희정(2006)과 전상진(2008)은 서동진과 다른 견지를 펴면서 자기계발이 개인의 성찰적 기획의 한 방편일 뿐만 아니라 주체의 수동적 삶을 적극적인 삶으로 전환시키는 기회를 부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기계발이 주체에 대한 새로운 억압인지 자유인지 따져보기 이전에 도대체 자기계발을 추동하는 감정적 원천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주체가 자기계발을 하는지 반대로 하지 않는지, 그리고 자기계발을 요청하는 주체는 누구이고 이를 수행하는 주체는 누구인지를 물어야 한다.

현실을 재구성하여 그와 관계 맺는 주체의 행위조건 혹은 행위방식을 유도하고 평가하며 보상하는 지식과 테크놀로지, 윤리의 복합적인 결합체가 바로 그 속성이라고 주장한다.³⁸⁾ 그런데 앞서 시사한 바와 같이 과거에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했던 공포와 불안이 이제 개인의 몫이 되어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신자유주의적 체제는 공포를 개인에게 떠맡기고 국가는 국민이 아닌 그들 스스로 '자기'를 만들어가도록 주체를 재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³⁹⁾ 요컨대 공포는 개인에게 자기계발의 추구를 내적으로 강요하는 감정적 에너지로 작용한다. 베버가 분석한 프로테스탄트의 노동윤리와 달리 신자유주의 시대 노동윤리는 외적 규범에 충실한 노동자를 넘어 자기 내적으로 윤리를 생성하는 혁신적인 자기계발이다.

이 과정에서 국가와 사회는 개인들에게 누구나 '성공'할 수 있고,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평등주의적 에토스를 전파한다. 이러한 평등주의를 전파하는 전도사가 (대)학교, 언론, 대중매체들을 통해 우후죽순 격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가정, 교육기관, 회사, 성인교육원 등 사회 곳곳에서 이러한 에토스는 체계적인 전문프로그램을 통해 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체화된다. 2000년대 들어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성공학 및 자기계발 서적의 범람은 개인들이 자기계발을 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한 전략의 결과이다.⁴⁰⁾ 이 외에도 자산관리, 재테크, 주식투자, 창업에 관한 전문적인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서적을 비롯해서 설득, 몰입, 대인관계와 관련된 책들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자기계발의 지향점은 주체의 진정한 자유, 즉 자아의 윤리적·미학적 삶을 추구하는 주체가 아니라 '생존을 추구하는 주체에 맞추어져 있다. 예를 들어,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 들어서면서 탈물질주의적 가치보다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두드러졌고, 돈과 학벌을 중시하는 풍조가 더 강해졌다.⁴¹⁾ 외환위기 이후 부상한 '박정희 신드롬'

38) 서동진, 「신자유주의 분석사로서의 푸코: 미셸 푸코의 통치성과 반정치적 정치의 회로」, 『문화과학』 제57호(2009), 335쪽.

39) V. Walkerdine, "Reclassifying Upward Mobility: Femininity and the Neo-Liberal Subject," *Gender and Education*, 15(3)(2003), pp. 239-240.

40)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마시멜로 이야기』, 『누가 치즈를 옮겼을까』,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꿈꾸는 다락방』, 『시크릿』 등은 지난 10년 동안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간 책들이다. 이에 관한 논의는 권오현의 「IMF 이후 성공학 서적의 유행과 출판·독서 시장」, 『한국사회』 제7집 2호(2006)를 참고할 것.

41)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국민의식조사 - IMF 10년, 한국사회 어떻게 변했나』(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07).

을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2000년대까지도 여전히 1960년대 산업화 시기의 성장주의적 전류가 흐르고 있으며, 이는 1990년대 이후 정치적 민주화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한국인의 내면에 침잠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⁴²⁾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08년 이명박 정권의 탄생은 성장주의적 동력에 터보엔진을 단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을 통해 한국경제는 여전히 성장주의 패러다임 안에서 작동하고 있으며, 정치와 문화 모두 성장주의 패러다임을 극복하지 못한 채 일상생활이 전개되고 있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 오늘날 우리의 일상은 경제성장과 무한경쟁을 위한 충전소에 불과해지고 있다. 일상은 자기계발의 자유를 실현하는 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있으며(서동진, 2009: 104), 그 중심에 자발적으로 노동력을 향상시켜나가는 ‘자아’가 존재한다. 이러한 삶의 태도를 일컬어 김홍중은 신자유주의적 ‘스노비즘’과 ‘동물성’으로 규정하기도 한다.⁴³⁾

2. 소비의 로맨틱화와 자기표출문화

공포의 사사화와 함께 공적 영역(국가, 시장, 시민사회)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은 공포를 내사하면서, 정치에 대한 냉소와 환멸을 느끼게 마련이다. 정치적 냉소주의는 개인 취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소비를 통해 자본주의가 제공하는 자유라는 환상과 비례하면서 무한증식한다. 바타이유를 경유하여 한국사회를 “무조건적 소모의 사회”로 규명하는 최종렬(2010)의 논의는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에 따른 인간의 고립된 존재로서의 “외로움”(고독감)을 오늘날의 소비행태와 연관시킨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회의 에로티화”이다. 정치에 대한 냉소와 환멸이 개인적 차원의 소비를 무조건적 소모로 전환시킨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정치적 공동체를 통해 시민으로서의 자유보다는 소비자로서 만끽할 수 있는 시장에서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소비공동체를 조직해나간다. 특히 소비를 통한 일상적 의례의 범람은 억압당한 자본주의적 주체를 로맨틱 혹은 에로틱한 의례주체로 만들어준다. 친밀성의 영역에서 행해지는 다채로운 의례와 공연 그리고 로맨스 상품의 교환은 상호 간의 존재감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42) 조명래, 「한국사회의 불확실성과 퇴행」, 『환경과 생명』 통권 51호(2007).

43) 김홍중, 「스노비즘과 윤리」, 『사회비평』 39호(2008).

중요한 실천이 된다. 오늘날 개인들에게는 국가의 역사적 경험을 기리는 기념일보다는 친구, 연인, 가족, 소속집단 내 사람들과의 로맨틱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념일이 더 중요시된다.⁴⁴⁾ 이처럼 국가와 시민사회에 기대할 것이 없는 개인은 차라리 사적 영역에 의존하는 생활양식을 추구하는 데 열정을 쏟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든스가 제시하는 친밀성의 구조변동과 연동되어 있는 생활정치의 맥락을 다른 각도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생활정치는 섹슈얼리티의 해방과 더불어 공적 영역이 균열되면서 부상한 “개인적인 것의 정치학”, 즉 “라이프스타일의 정치”이다.⁴⁵⁾ 그런데 여기서 기든스가 부각시키는 것은 자기정체성이며, 주체가 자신을 통제하는 성찰적 기획이다. 그러나 기든스의 생활정치는 라이프스타일의 정치에 내재해 있는 감정동학을 간과하고 있다. 라이프스타일의 부상은 개인화에 따른 자율성의 증대와 공포의 확산이라는 이중성을 배태하고 있다. 기든스는 자아정체성을 추구하는 일상성이 강화될수록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공포의 무게가 늘어간다는 역설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공포는 어떤 개인에게는 성찰적 기획을 자극하는 기폭제가 되지만, 다른 개인에게는 성찰성을 가로막는 체념과 무감각을 이끌기도 한다. 하지만 기든스는 주체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측면을 부각시킴으로써 개인이 처한 사회관계적 맥락 속에서 작동하는 내면의 감정동학을 배제시켜버린다.

자기계발은 각자가 처해 있는 사회적 위상을 발판 삼아 다양한 실천으로 표출된다. 누구나 부자가 되고 성공할 수 있는 평등주의적 에토스에 기반하고 있지만 개인들은 타인과 차별성을 두기 위한 구별짓기를 행하며, 정체성 혹은 스타일의 정치를 추구하는 데 시간을 투자한다. 왜냐하면 남들과 똑같은 경우 그 누구도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경쟁의 땃을 빠져나오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날 정체성과 스타일은 대부분 소비자본주의가 제공하는 한정된 지표와 메뉴로부터 기인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육체가 자리하고 있다. 오늘날 자기계발의 특징은 육체를 관통한다는

44) 매달마다 찾아오는 연인들 간의 기념일부터 시시 때때로 행해지는 부부간의 이벤트, 가족을 위한 여행이나 이벤트 등은 국가기념일보다 훨씬 더 개인에게 기념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한다. 이러한 의례를 행하지 않는 개인이 치러야 할 대가는 상상하는 것 이상이다.

45) 기든스, 『현대인의 사랑·성·에로티시즘』(서울: 새물결, 1999), 307쪽.

점에서 생체권력적 차원을 갖는다. 개인화된 사회에서 육체만큼 자신이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은 없다. 생물학적 육체는 폭발적인 다이어트담론과 웰빙담론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되고 통제되어 사회적 육체로 탈바꿈된다. 육체에 대한 강조는 타인과의 차별화를 드러내기 위한 전략과 다름없다.⁴⁶⁾ 그런데 자기계발은 외모뿐만 아니라 섹슈얼리티까지도 관통한다는 점에서 성적 욕망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통치가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이희영에 따르면 대중매체를 통해 전파되는 몸과 욕망에 대한 계발담론은 “신자유주의적 주체”의 생산과 연동하면서⁴⁷⁾, 끊임없이 자신의 몸과 욕망을 관리하며 타인과 경쟁하도록 자극한다.

무한경쟁과 불안한 미래 앞에서 주체가 겪는 불안과 공포는 ‘자기어로의 사랑’을 더욱 강화한다. 육체에 대한 세밀한 관심과 체계적인 관리는 몰사회적 자기애를 심화시킨다. 육체는 그런 면에서 개인화를 극대화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대적 나르시시즘은 자기로부터 기인하는 공포를 배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노명우는 1990년대 이후 몸담론의 변화를 ‘재현양식과 불안양식’에서 찾음으로써 소비자본주의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몸은 시장에 의해 포획되고 전문가체계에 의존함으로써 개인의 결정권을 상실했다고 주장한다.⁴⁸⁾ 오늘날 몸관리에 대한 열정적인 투자는 그 규모를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일상생활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⁴⁹⁾ 대중매체를 통해 전파되는 내용 중 상당 부분이 몸, 다이어트, 성형, 웰빙, 음식, 운동, 건강, 의료, 자기계발, 몸값 올리기 등으로 채워져 있으며, 그만큼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대중매체는 우리 몸의 상당 부분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경고하면서 공포커뮤니케이션을 적절하게 활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몸담론의 과잉은 육체에 각인되기도 하지만 육체를 통해 외부로 표출된다. 표출되는

46) 이러한 상황에서 정체성은 ‘롱다리’, ‘몸짱’, ‘얼짱’, ‘꿀벅지’나 아니면 ‘숏다리’ ‘얼큰이’ ‘몸짱’ ‘얼짱’ ‘똥장녀’에 따라 좌우되기도 한다.

47) 이희영, 「섹슈얼리티와 신자유주의적 주체화」, 『사회와 역사』 제86집(2010).

48) 노명우, 「몸의 지배양식과 개인화의 역설」, 『문화과학』 59호(2009), 85-89쪽.

49) 오늘날 성형산업은 비난에서 열광의 대상으로 전환되었다. 1990년 성형외과 의사는 276명, 15년 후에는 1,102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의사가 271%가 늘어난 것에 비해 무려 400%가 증가했다. 그리고 2005년에 국내 미용성형 산업과 화장품산업 규모는 무려 10조 원을 넘어섰다. 이 외에 몸관리 산업 전체의 규모는 천문학적인 수치를 기록할 것이다.

몸은 일상영역 곳곳에서 다양한 각축전을 벌이면서 시달리게 된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문화는 자기의 몸을 타인에게 최대한 표출하라는 과제를 요청한다. 요컨대 오늘날 루키즘의 부상은 내사된 공포가 외화되는 과정으로 자기표출문화를 심화시키면서 육체권력을 형성하는 데 일조한다.⁵⁰⁾

이러한 자기표출문화는 사이버공간을 통해 육체는 물론 자기만의 은밀한 내적 영역에까지 더욱 확장되어왔다. 2000년 이후 등장한 싸이월드, 블로그, UCC, 페이스북, 트위터 등 개인공간에 공개된 사진과 글은 개인독백과 자기연출을 위한 의례적 성격을 지닌다. 커뮤니케이션 혁명을 통해 자기고백과 자기연출의 시대가 열리고 있으며, 일상은 자기고백과 연출을 위한 의례의 시공간으로 재편되고 있다.⁵¹⁾ 이 공간에서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다양한 기술과 서사를 구사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또 다른 자아를 창출함으로써 타인과의 소통영역을 넓혀갈 뿐만 아니라 ‘자기표출의 전문화’를 추구한다.

나아가 자기표출문화는 친밀성의 영역에서도 강하게 작동한다. 사랑과 결혼 나아가 가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연인, 배우자, 자녀에게 행해야 하는 각종 의례(이벤트, 기념일, 여행 등)는 관계를 지속시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버렸다. 울리히 벡 부부가 일찍이 현대사회에서 사랑은 종교가 되어버렸다고 주장하듯이⁵²⁾, 로맨스 상품이 거래되는 소비시장 규모는 막대하다.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 다양한 커플이벤트, 가족여행, 기념일 챙기기는 2000년대 들어서서 일상의 습관처럼 자리하고 있다. 여기서도 상호 간에 자기를 드러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관계를 지속시키는 중요한 척도로 작용한다.⁵³⁾ 이들의 일상은 전화통화, 식사, 쇼핑, 선물, 이벤트, 여행, 관람 등 주기적으로, 때로는 매일 행해야 하는 의례들로 넘쳐난다. 그런데 이러한 의례들마저도 점차 관련 전문가

50) 루키즘 혹은 외모지상주의와 관련된 대부분의 논의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강화 혹은 소비문화의 확산 등의 결과로 해석하는 경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루키즘 발생의 사회문화적 헤게모니가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에서 루키즘의 원천은 공포를 배태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엄묘섭, 「시각문화의 발전과 루키즘」, 『문화와 사회』 7(1)(2008)을 참고할 것.

51) 싸이월드는 2002년에 시작되어 2004년에는 가입자 수가 1천만 명을 넘어섰고, 2006년에는 1,700만 명에 육박했다. 그 이후에 등장한 SNS 가입자를 합치면 그 수는 어마어마할 것이다.

52) 울리히 벡 외, 『사랑은 지독한 혼란』(서울: 새물결, 1999), 41쪽.

53) KBS 개그콘서트의 한 코너인 ‘남성인권보장위원회’에서 이를 풍자하는 신랄한 내용을 보라.

들이나 카운슬러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정보를 얻고 있다(일루즈, 2010). 각종 이벤트 회사를 비롯하여 사랑관리 서적들은 로맨스 의례를 강조하면서 주체들을 점점 로맨스 결핍자들로 몰아세운다. 개인화로 파생된 불안과 공포는 개인 스스로 배우자를 찾는 자율성마저도 박탈하고 있다. 즉, 결혼을 자율적 선택과 결정에 맡기지 않고 수많은 정보와 전문가체계에 의존하는 관행이 확산되고 있다. 이를 위해 본인이 누군가를 선택할 때뿐만 아니라 선택받기 위해서도 자기를 최대한 표출해야만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2000년대 들어 급증한 결혼정보업체들이 회원들에게 요구하는 기본 정보를 보면, 연봉·학력·집안·재산·외모·건강·취미 등이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노동시장 진입은 물론 사적 영역을 위해서도 스펙을 쌓는 데 치중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3. 자기표출문화의 패러독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2000년대 자기표출문화의 범람은 자기개발 담론과 친화력을 가지면서 사람들에게 일상에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개발하고 자신을 표출하라는 문화를 형성한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기재현 기술을 개발하고 자기표출을 위한 경쟁에 돌입한다. 대표적으로 오늘날 연예인들이 토크쇼나 오락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개인사와 사생활을 내뱉는 ‘자기고백’이나 개인기는 자기표출문화의 전범이라고 볼 수 있다.⁵⁴⁾ 이들의 이야기는 고해성사의 성격을 띠기도 하면서 면죄부의 기회를 얻거나 동정을 얻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과거와 현재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표출하느냐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이다. 이로써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은 희미해지고 자신을 드러내는 기술에 대한 오락적 판단이 부각된다.

이에 따라 수치심도 새롭게 작동한다. 자신의 육체를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사생활을 폭로하는 행위를 수치스럽게 느끼던 시대는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얼마만큼 잘 드러내느냐는 ‘자신감’과

54) 이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천선영은 “대중매체를 통한 사적 영역의 자발적 공개 내지는 사적 영역에의 자발적 개입 허용” 현상을 ‘공개고백성사’라고 칭하면서 친밀성과 내밀성의 대중적 생산과 소비의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천선영, 『“공개고백성사”의 시대』, 『미디어, 젠더 & 문화』 10호(2008), 39쪽.

결부된다. 그리고 오늘날 자신감은 유아기부터 훈육되어야 하는 심성으로 자리 잡고 있다. 즉, “어디 가서 기죽지 말고 떳떳해라.” 이제 자신의 행동에 수치심을 느끼는 것은 자신감 결여, 용맹함 부족, 나약함으로 이해된다. 일반적으로 도덕적 차원에서 작동해왔던 수치심은 오늘날 자기표출의 육체화 과정을 통해 점차 쇠퇴하고 있다. 반대로 이제 수치심은 몸과 패션을 매개로 작동한다. 예컨대 ‘똥똥한 사람’, ‘키 작은 사람’, ‘못생긴 사람’은 수치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성형수술, 다이어트프로그램 등을 통해 몸을 수정한 사람들은 이를 더 이상 숨기지 않는다. 성형 이전과 이후의 변화된 모습을 자신 있게 드러내는 것이 ‘자신감 있고 용감한 행위’라고 더 각광을 받는다. 이러한 사실을 고백하는 주체는 비난의 대상에서 부러움의 대상으로 전환되었다.

한편 더 이상 도덕적 차원에서 작동하지 않는 수치심은 권력과 자본의 도구적 합리성이 팽배해지는 상황에서 ‘뻔뻔함’으로 대체되고 있다. 부정 부패를 일삼은 과거 행태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버티는 권력집단의 위풍당당한 뻔뻔함을 보라. 토마스 셰프에 따르면 수치심의 작동 여부는 사회유대를 이끄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즉, 구성원들이 사회적 관계 안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사회유대의 지속성과 매우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⁵⁵⁾ 그러나 도덕적 차원의 수치심이 쇠퇴함으로써 기존의 유대문화는 쇠퇴함과 동시에 연대에 대한 새로운 전환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한국사회의 진정한 사회통합은 지배권력의 뻔뻔함이 수치심으로 전환될 때나 가능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주체는 보여줄수록 사회적으로 포획당하고, 영혼은 잠식당하게 된다. 이는 마치 정보사회가 감시사회가 되듯이, 이른바 휘태커가 말하는 “프라이버시의 종언”이 현실화되는 역설과 일맥상통한다.⁵⁶⁾ 그리고 푸코의 주장대로 자기고백의 범람은 사회적 담론으로 구성되어 개개인을 주체화시킴으로써 특정한 담론 속으로 포획시킨다. 이로써 주체를 감시하고 통제하고 조롱하는 권력은 탄생하지만 실상 주체는 사라져버린다.⁵⁷⁾ 더 이상 드러낼 것이 없는 주체는 드러내기

55) T. Scheff, “Shame and the social bond: A sociological theory,” *Sociological Theory*, 18(2000).

56) Reg Whitaker, *The End of Privacy: How Total Surveillance Is Becoming a Reality* (New Press, 2000).

경쟁에서 패배하여 점차 소외된 존재로 남게 될지도 모른다. 이와 같이 타인에게 끊임없이 드러내고 확신을 주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 스펙터클 문화가 일상을 지배하면서 정작 자아는 자신을 위한 ‘계발’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계발에 몰두하는 패러독스를 경험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를 표출하는 만큼 주체가 경험하는 고독감과 공허함은 배가될 것이다.

V.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 한국사회의 일상생활은 개인화의 심화와 더불어 공포에 더욱 민감해지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는 개인에게 닥쳐오는 위험을 최대한 떠맡기보다는 부담을 최소화한다. ‘작은 정부’ 혹은 ‘효율적인 정부’라는 신자유주의적 국가관을 철저하게 관찰시키면서 개인들에게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도전하면서 경쟁에 맞서라고 부추긴다. 그것도 모자라 ‘나의 경쟁 상대는 전 지구인’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화의 패러독스로 인해 개인의 일상적 삶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만큼 자율적이거나 행복하지 못하다. 개인 스스로 감당하기 버거운 사회적 혼란과 중층적 위험이 날로 증가하면서 사람들은 국가나 시민사회가 아닌 개인적 차원에서 동원할 수 있는 정보와 전문가체계에 의존한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경험하는 공포는 줄어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전문가체계는 공포를 매개로 기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화는 신자유주의 체제와 결합하면서 ‘자기관리’의 자유를 극대화하고 공포를 사사회하는 문화를 형성한다. 이렇게 형성된 공포문화는 주체의 영역을 축소시키며, 삶의 다양한 도전과 실험을 유보하게 만든다. 이로써 개인화는 자율적인 주체의 생산이 아니라 사회적 보수화를 이끈다.

한국사회가 정치적 차원뿐만 아니라 일상적 차원에서도 보수화되는 점은 개인화의 패러독스로 인해 선택적 친화력을 갖는다. 물론 이 둘의 발생적 맥락은 다를 수 있다. 일상적 보수화는 정치적 차원에서 논할

57) 대중스타를 비롯하여 일반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 같은 권력은 우울증, 신경증, 대인공포증 심지어는 자살까지 유도하기도 한다. 자기표출문화가 지속되는 한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수 있는 이데올로기적 차원보다 감정적 차원에서 작동하는 에토스를 배태하고 있다. 현대 한국사회의 일상성은 공포가 편재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자기계발을 통해 타인과 경쟁하면서 생존하려는 의식으로 채워져 있다. 그리고 경쟁을 통해 최대한 자신을 표출하려는 자기연출 기술이 전문화되어 전파되고 있다. 특히 '나 자신'을 점점 사회적 삶의 중심에 놓고 일상을 재편해나가려는 거대한 흐름이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자기표출문화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제공되는 소비공간에서 펼쳐질 뿐이다. 그리고 파편화된 개인의 자기표출은 기존 담론에 대한 저항적 의미가 아닌 예측된 형태로 국가의 암묵적인 통치방식을 수용하여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주체는 어떤 대안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인가? 그동안 국가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가 제공해주었던 자유와 희망의 공간은 신자유주의적 통치의 도래와 함께 협소해지고 있다. 그러나 개인화의 역설에 대한 역설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증명되어왔듯이, 인간은 스스로 자유와 희망의 공간을 찾는 데 멈추지 않는다. 그러나 거대한 권력체와 맞서 있는 개별화된 인간의 일상이 자유와 희망의 공간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연대를 필요로 한다. 신자유주의적 통치체제를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조합이 요구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따라서 우리의 삶이 연속적이라는 존재론적 상황을 고려해볼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에게 연대는 왜 불가피한 것인가?” 현대적 공포의 소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때에야 비로소 시작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권오현, 「IMF 이후 성공학 서적의 유행과 출판·독서 시장」. 『한국사회』 제7집 2호, 2006, 91-132쪽.
- 기든스, 앤서니 저, 배은경·황정미 역, 『현대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서울: 새물결, 1999.
- 김왕배, 「자살과 해체사회」. 『정신문화연구』 제33권 제2호, 2010, 195-222쪽.
- 김홍중, 「스노비즘과 윤리」. 『사회비평』 39호, 2008, 50-70쪽.
- , 「진정성의 기원과 구조」. 『한국사회학』 제43집 5호, 2010, 1-29쪽.
- 노명우, 「몸의 지배양식과 개인화의 역설」. 『문화과학』 59호, 2009, 79-94쪽.
- 바바렛, 잭 저, 박형신·정수남 역, 『감정의 거시사회학』. 서울: 일신사, 2007.
- 바우만, 지그문트 저, 함규진 역, 『유동하는 공포』. 서울: 산책자, 2009.
- 박소진, 「자기관리와 '가족경영' 시대의 불안한 삶」. 『경제와 사회』 통권 84호, 2009, 12-39쪽.
- 박원석 외, 『촛불이 민주주의다』. 서울: 해피스토리, 2008.
- 박재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노동자의 삶의 질 변화: 한국의 사례」. 『한국사회학』 35집 6호, 2001, 79-104쪽.
- 박형신, 「먹거리 불안·파동의 발생메커니즘과 감정동학」. 『정신문화연구』 제33권 제2호, 2010.
- 박형신·이진희, 「먹거리, 감정, 가족동원: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의 경우」. 『사회와 이론』 통권 13집, 2008, 147-183쪽.
- 박형신·정수남, 「거시적 감정사회학을 위하여」. 『사회와 이론』 통권 15집, 2009, 195-234쪽, 162-192쪽.
- 박혜경, 「신자유주의적 주부 주체화 담론의 계보학: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6권 2호, 2010, 127-158쪽.
- 백진아, 「한국의 가족 변화: 가부장성의 지속과 변동」. 『현상과 인식』 제33권 통권 107호, 2009, 204-224쪽.
- 백, 올리히 외, 『사랑은 지독한 혼란』. 서울: 새물결, 1999.
- 서동진, 「신자유주의 분석가로서의 푸코: 미셸 푸코의 통치성과 반정치적 정치의 회로」. 『문화과학』 봄호, 2009, 315-335쪽.
- , 『자유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 서울: 들배개, 2009.
-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국민의식조사 - IMF 10년, 한국사회 어떻게 변했나』.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07.
- 손승영, 「한국 가족의 과시적 구별짓기와 사랑의 물신주의」. 『현상과 인식』 봄/여름, 2007, 102-126쪽.

- 송호근, 『한국,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3.
- 엄도섭, 「시각문화의 발전과 루키즘」. 『문화와 사회』 7(1), 2008, 73-102쪽.
- 이득재, 「신자유주의 국가의 주체화 양식」. 『문화과학』 제54호, 2008, 52-76쪽.
- 이영자, 「소비시장과 라이프스타일의 정치학」. 『현상과 인식』 통권 110호, 2010, 101-124쪽.
- 이희영, 「색슈얼리티와 신자유주의적 주체화」. 『사회와 역사』 제86집, 2010, 181-217쪽.
- 일루즈, 에바 저, 김정아 역, 『감정자본주의』. 서울: 돌베개, 2010.
- 전상진, 「자기계발의 사회학: 대체 우리는 자기계발 이외에 어떤 대안을 권유할 수 있는가?」. 『문화와 사회』 제5권, 2008, 103-140쪽.
- 조명래, 「한국사회의 불확실성과 퇴행」. 『환경과 생명』 통권 51호, 2007, 11-28쪽.
- 조정환, 『미네르바의 촛불』. 서울: 갈무리, 2009.
- 천선영, 「컨설팅 사회」, 『담론 201』 7(1), 2004, 104-130쪽.
- _____, 「공개고백성사의 시대」. 『미디어, 젠더 & 문화』 10호, 2008, 37-39쪽.
- 최종렬, 「무조건적 사회2: 가부장적 핵가족의 내파와 사회의 에로틱화」. 『문화와 사회』 제8권, 2010, 128-171쪽.
- 홍성태 외, 『촛불집회와 한국사회』. 서울: 문화과학사, 2009.
- Beck, U., *The Risk Society*, London: Sage, 1992.
- de Rivera, J., "Emotional climate: social structure and emotional dynamics," in *International Review of Studies on Emotion*, edited by K. T. Strongman, New York: John Wiley & Sons, 1992, pp. 197-218.
- Furedi, F., *Culture of Fear Revisited*, London: Continuum, 2006.
- Garland, D., "The Rise of Risk," *Risk and Morality*, Toronto: Univ. of Toronto Press, 2003, pp. 48-86.
- Green, L., "Fear as a Way of Life," *Cultural Anthropology*, 9(2), 1994, pp. 227-256.
- Kemper, T., *A Social Interactional Theory of Emotion*, New York: John Wiley, 1978.
- Scheff, T., "Shame and the social bond: A sociological theory," *Sociological Theory*, 18, 2000, pp. 84-99.
- Walkerdine, V., "Reclassifying Upward Mobility: Femininity and the Neo-Liberal Subject," *Gender and Education*, 15(3), 2003, pp. 237-248.
- Whitaker, Reg. 2000. *The End of Privacy: How Total Surveillance Is Becoming a Reality*. New Press.
- 장희정, 「자기계발의 시대 - 프랭클린 플래너 유저 모임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정수남, 「노동자의 불안·공포와 행위의 감정동학」.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국 문 요 약

본 논문은 현대 한국사회의 일상성을 공포를 통해 이해함으로써 일상생활의 감정사회학적 접근을 시도한다. 특히 현대 한국사회의 보수화를 이끌고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사회적 에토스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먼저, 현대 한국사회의 불확실성과 공포문화가 형성되는 구조적 메커니즘을 탐색한다. 둘째, 현대사회의 개인화 과정이 초래한 결과로 공포의 사사화 현상을 밝히고, 이것이 주체에게 미치는 효과를 설명하고자 한다. 셋째, 개인화의 패러독스에 주목하면서 축소된 주체의 탄생을 설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축소된 주체가 구현하는 일상성의 특징을 자기계발과 자기표출문화로 규명하면서 이러한 일상성이 지닌 존재론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투고일 2010. 9. 20.

수정일 2010. 11. 3.

게재 확정일 2010. 11. 11.

주제어(keyword) 공포(fear), 개인화(individualization), 축소된 주체(diminished subject), 공포의 사사화(privatization of fear), 자기표출문화(self-exposure culture), 개인화의 패러독스(paradox of individualization)